



주간 테러동향[제494호]

'26. 3. 20.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- 美 FBI, 이란의 캘리포니아 드론공격 시도 가능성 경고
 - 3.12 美 FBI는 이란과 멕시코 카르텔이 캘리포니아 등 미 서해안 지역에 드론 공격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으며,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보안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
 - ※ FBI는 다만 이러한 공격의 시기, 방식, 목표 또는 실행 주체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가 없다고 부언

아 테

- 서울시, BTS 공연 인파밀집 대비 광화문 주변 통제 강화
 - 3.15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인근 31개 건물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출입 통제 등을 요청했으며, 이란 분쟁 등 관련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찰특공대와 금속탐지기·바리케이드 등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
 - ※ 서울시는 그 외 25개 건물에도 팬들의 무단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옥상을 비롯한 상층부 출입 통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부언
- 韓, 美 공항 폭파 협박 글 올린 20대 남성 송치...“엄정 대응”
 - 3.17 언론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지난해 美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20대 한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도
 - ※ 경찰은 “대규모 공연이나 행사와 관련된 협박성 게시글의 경우, 단순 장난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”이라 부언

- **韓, 대통령 “BTS 공연 빈틈없는 안전대책 수립...테러 대비도 충실히”**
 - 3.17 언론은 대통령이 제 10회 국무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‘빈틈없는 안전대책 수립’과 테러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‘대비를 충실하게 해달라’ 지시했다 보도

중 동

- **이란, 이라크 영해 정박 유조선 공격 등 해상공격 확대**
 - 3.12 언론은 이란이 지난 11일,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인 해외 유조선 2척을 공격하고, 주변 국가의 연료저장탱크 및 유전지대에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관계자는 ‘미국과 이스라엘, 그들의 동맹국과 관련 되는 어떠한 선박도 표적으로 간주할 것’이라는 성명을 발표
- **이라크 이슬람저항군, 미군 위치 제보시 현상금 10만불 제시**
 - 3.14 언론에 따르면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인 이슬람저항군(IRI)*은 성명서를 통해 미군 등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10만불(약 1억 5천만원)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
 - * 이라크 內 이란의 지원을 받는 준군사조직 연합체로 이란이 이끄는 ‘저항의 축’ 일원으로서, 이라크 內 미국 관련 시설을 공격하는 중
- **이스라엘, 美 유대회당 공격범-헤즈볼라 지휘관 형제로 판명**
 - 3.16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美 미시간주 유대교 회당을 공격 후 자살한 공격범이 지난 5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헤즈볼라 지휘관과 형제지간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보도
- **이란, 홍해 내 美 항모 지원시설 대상 보복 공격 경고**
 - 3.16 언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하르그섬 공습에 따라,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사우디 제다항, UAE 푸자이라 항구 등 美 항모를 지원하는 홍해 주변 물류기지까지 공격대상을 확대 중이라고 보도

역사속 테러사건

튀니지 바르도 국립박물관 총기테러

- '15.3.18. 튀니지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박물관 입구에서 총기 테러 발생

- 테러범들은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자동소총을 난사한 후, 박물관 내부에서 인질극을 벌이다, 군·경과의 3시간 교전 끝에 사살



- * 일본, 이탈리아, 프랑스 등 1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과 현지 경찰을 포함해 총 22명이 목숨을 잃고 50여 명이 중상

- 사건 직후 ISIS는 사건 배후를 자처하며, '튀니지 경제 기틀인 관광 산업 파괴와 민주주의 체제 전복 의도'를 노골적으로 표출

- 이에, 튀니지 정부는 ISIS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대응 의지를 표명하며,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대테러 관련 법·제도 강화 추진

- 한편, 동 사건은 '아랍의 봄' 이후 민주화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던 튀니지의 치안 불안 및 사회적 불안정성을 노출한 사건으로 평가

테러 상식

< 소프트 타겟 (Soft Target) >

- (정의) 군부대나 정부기관처럼 무장 경비가 삼엄한 '하드타겟'과 대조되는 개념으로, 쇼핑몰, 공연장, 학교 등 민간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보안 장벽이 낮은 장소 또는 목표물을 지칭.
- (특징) 높은 공격 성공률, 적은비용으로 다량의 인명피해, 극심한 심리적 공포
- (대표사례) ① 프랑스 파리 바타클랑 공연장 테러(2015, 사망 130, 부상 350여명)
② 튀니지 바르도 박물관 테러 (2015, 사망 22, 부상 50여명)
③ 벨기에 브뤼셀 테러 (2016, 사망 32, 부상 300여명)
④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쿠스 시티홀 테러 (2024, 사망140, 부상 180여명)
- (대처법)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비상구 위치 확인,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을 벗어나는 'Run(실행)', 안전한 곳에 은신하고 문을 잠그는 'Hide(은신)', 안전확보 후 경찰에 'Tell(신고)' 3대 원칙을 준수